

황정수 무주군수 국비확보 총력

톱밥배지 조성 등 사업추진 위한 정부예산안 기재부 심의 반영 요청

황정수 무주군수가 지난 2일 세종시 기획재정부 농림해양예산과와 문화예산과를 방문해 부처 관계자들을 만났다

이날 황 군수는 지역의 발전과 태권도 성지화를 위해서는 톱밥배지 조성 사업 추진(2017 국비 10억 지원 건)과 태권도 명예의 전당(태권전, 명인전)건립,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가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관련 국비가 2017 정부예산안 기획재정부 심의 단계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정수 무주군수가 지난 2일 세종시 기획재정부 농림해양예산과와 문화예산과를 방문해 부처 관계자들을 만났다.

황 군수는 태권도인들의 정신적 중심지 역할을 해줄 태권도 명예의 전당 건립과 관련해 부족분 1백 억 중 70억을 국비로 충당해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태권도 명예의 전당은 기부금으로 건립할 계획이었던 사업이지만 기부금 모금실적(총 사업비 178억 중 기부금액 28억, 조건부 모금액 50억)이 저조해 건립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50억 기부 의사를 밝혔던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에서도 국비확보를 전제로 하고 있어 무주군은 기재부

심의 단계에 있는 태권도 명예의 전당 건립에 필요한 국비가 '16년 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의해 확보되거나 17년 태권도진흥재단 운영지원 예산에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톱밥배지센터는 귀농·귀촌자 일자리 창출과 농가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조성하려는 것으로 무주군은 총 사업비(국비 20억, 도비 5억, 군비 15억) 40억 원 중 2017년도에 필요

한 국비 10억 원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며,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국비 25억 원 지원을 건의한 상태다.

무주군 관계자는 "지역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추진하려는 사업들이 모두 원활하게 추진돼 모두가 바라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기자



오는 6일 진안고원시장서 '축제와 만나장' 야시장 개최

한여름 밤 무더위를 날려 버릴 재미난 문화장터가 오는 6일 저녁 6시 진안고원시장에서 열린다.

제9회 진안군마을축제 프로그램 중 하나인 한여름 밤의 재미난 문화장터 '축제와 만나장'은 마을 주민들이 직거래장터를 열고 다양한 공연과 함께 먹거리리코너를 운영하는 야시장이다.

평소 지역 주민들의 동아리 모임 등의 결과물로 직접 제작한 수공예품과 지역의 학생들과 주민들이 준비한 작은 문화공연, 베틀시장 운영 등 소박하지만 마을과 사람과 문화가 만나 아담하고 정감있는 장터로 이뤄진다.

군 관계자는 "'축제와 만나장'은 각 마을에서 펼쳐지는 마을축제와 함께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진안을 방문한 관광객과 출향민, 진안을 주민들에게 무더운 여름날 더위를 잊게 해 줄 또 하나의 재미를 선사할 것이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민기자

완주군민 재난피해 발생시 보험혜택 이용 가능

군민 절차없이 자동 보험수익·관외 사고 발생시도 보험금 지급받을 수 있어

완주군은 군민들의 재난피해 발생시 완주군민 안전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으로 군민 모두에게 보험혜택 이용 독려에 나섰다.

군은 지난해 군 지역 최초로 완주군민안전보험을 첫 실시했으며, 재난피해 발생시 군민누구나 보험 혜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주민들이 폭발·화재·붕괴사고,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

해(장애)·사망을 당한 경우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활안정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주민은 별도의 보험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익자가 되며, 관외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안전보험의 보장범위는 폭발·화재·붕괴 사고와 대중교통이용 중

사고로 크게 2가지 유형이며, 보장금액은 사망 시 1,000만원, 후유장애 시 장애 비율에 따라 1,000만원 한도이다.

재난안전과 관계자는 "앞으로 피해를 받은 군민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으며, 모든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기자



장수 장계면, 대학생 사회체험 봉사활동 전개

장수군 장계면은 대학생 사회체험 프로그램 참여자와 봉사활동을 전개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장계면은 사회봉사 및 보건담당자와 대학생사회체험 프로그램 참여자 등 6명 봉사단을 구성하고 관내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가구를 방문해 각종 봉사활동을 전개한다.

봉사단은 이날 중순까지 독거노인 생활실태조사, 혈압 및 혈당검사, 문진 등을 통해 노인건강상태를 파악하고 말벗되기, 마당 및 가구 주변

쓰기, 잡초제거, 화단정비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참여 대학생들은 "사회체험 프로그램을 하면서 행정기관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전반적으로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며 "특히 방문 봉사활동을 통해 노인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고 앞으로 이러한 봉사활동 기회가 주어지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기자

박성일 완주군수 "군정 최상의 가치는 주민행복"

박성일 완주군수가 군정의 최상의 가치는 '주민 행복'인 만큼, 소통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군수는 2일 확대 간부회의를 통해 "민선6기 최상의 가치는 주민 행복과 복지"라며 "다함께 열어가야 으뎌도시 완주군 군정지표는 소통을 통

해 주민의 뜻을 받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군수는 사실상 백지화된 전 주대대의 붕괴 이전을 예로 들며 "각종 행정추진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최종 판단은 주민의 뜻인 만큼 주민의견 수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완주=이종복기자

무주경찰서 청렴문화 조성 캠페인

무주경찰서는 2일 경찰서 정문에서 청렴동아리 회원, 교통외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근하는 직원들을 상대로 불시 숙취 음주운전 등 의무위반예방 및 청렴문화 조성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은 최근 경찰관의 품위유지 위반이 빈발함에 따라 음주운전 근절 및 부패척결을 위해 청렴동아리가 선도적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다.

무주서 반디폴 청렴동아리는 본서, 파출소 근무자인 신입직원, 대인접촉부서 등 각 부서 33명으로 2016년에 구성되어 자정활동 등 청렴문화 활동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최성규 서장은 "음주운전 등 의무위반으로 경찰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각자 스마트한 사고를 갖고 업무에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무주=전문선기자

무주군, 농반기 공동급식 지원 사업

무주군이 농반기 공동급식 지원 사업을 펼쳐 관심을 모으고 있다. 농반기 공동급식 지원 사업은 농촌의 일손 부족을 해결하고 여성 농업인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도 키우고 있다.

올해 농반기 공동급식 지원사업 대상이 된 곳은 공동급식 시설을 구비하고 20인 이상 급식이 가능한 개 읍면 11개 마을로 군은 이들 마을에 부식비와 조리원 인건비 등을 지원(총 사업비 2천 4백만 원)한다.

군은 농가수와 영농규모, 급식참여 인원과 참여비용, 급식장소와 시설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 최종 대상지를 선정했다.

대상마을 주민들은 "농사일에 전념할 수 있는 이 좋은 혜택을 많은 농가들이 누렸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기자

장수군보건의료원,건강관리 캠페인

장수군보건의료원은 건강하고 활기찬 여름나기를 위해 2일 방화동가족휴가촌(반암면 사암리 소재)에서 건강관리 합동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장수군보건의료원 관계자와 전북 지역임센터 관계자 등 20여명은 방화동 자연휴양림을 찾은 피서객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결핵, 에이즈, 마약류, 모자보건 등 각종 질병 예방관리 및 감염병 예방 개인위생수칙 준수요령이 실린 리플릿과 홍보물을 배포했다.

또한 질주, 급주, 심너혈관질환, 금연, 구강보건, 국가암, 치매예방관리 등 각종 질병에 대한 리플릿을 배부하며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홍보했다.

/장수=고관호기자

진안고원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할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매 장날 운영(4,9일장)
장 소: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진안고원 청정농산물 판매

행사문의
진안군청 전파산업과
063-430-2951